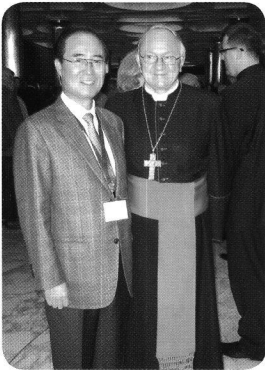


##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 생명을 노래하는 사람, 고통 받는 사람 중에서도 고통 받는 사람

박정한 아우구스티노 | 대구가톨릭의대 석좌교수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1920년에 폴란드에서 3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교황님이 9세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12세 때 의사였던 형이 성홍열 환자들을 돌보다 감염되어 사망하였고, 19세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으며, 신부가 되기 전에 누

나마저 사망하여 가족이 모두 병사하는 고통을 겪었다. 어린 시절의 이러한 경험이 병자와 그 가족에게 특별한 연민의 정을 갖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1981년 5월 13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일반 알현 중에 암살자 알리 아자의 총을 맞아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나는 그를 용서한다.”고 하셨다. 퇴원 후 교도소로 찾아가 그를 만나고 나온 후 “내게 총을 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자. 나는 이미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였다.”고 말씀하시며 그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셨다.

낙태, 안락사, 인공피임, 인간복제는 하느님의 의도와 자연법칙을 어기는 행위로 죄악으로 규정하셨다. 1984년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 기념식을 맞아 방문했을 때 소록도를 방문해 한센병 환자들의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을 내려주셨다(필자가 추가). 이처럼 예수님과 같이 소외된 자, 억압 받는 자, 고통 받는 자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한 관심과 사랑의 결정체의 예로 1985년에 교황청에 보건의사목평의회를 만드신 것과 1992년에 병자의 날을 제정하신 것을 들 수 있다. **보건의사목평의회는 사제,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의미 재차 강조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Suffering is a gift, innovation of life(고통은 선물이며, 삶을 쇄신하는 기회다).”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 고난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것이다. 인간은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몸과 마음이 다 아프기 때문에 영적으로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고통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특혜이다. 병원은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교회이다. 고통 받는 이에게 착한 사마리아 인과 같이 선을 행하여라.”고 하셨다.

## 현대 병원과 의료인의 자세에 대한 비판

오늘날 evangelization(복음전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남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복음화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인간은 하느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이 드물어지고, 교회는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있으며, 성체를 모시고 있는지? 이는 인간이 하느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어디인가?

인간이 인간을 만날 수 있는 곳, 병이 나서 아파서 찾는 곳, 치료를 구하는 곳이 병원이다. 그곳에서 의사, 간호사 등을 만난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병원은 인간을 건져 올리는 기적의 그물이다. 복음에서 병자의 치유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하였다. 아프리카의 높은 어린이 사망률을 어떻게 할 것이며, 버려진 어린이들은 누가 돌볼 것인가? 인간의 혈액은 혈값에 팔리는데, 마약은 고가에 팔리고 있다. 병자를 치료하는 자들은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 병원은 선한 사

마리아 인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어디 갔나? 보건의료사목이 시급한 과제이다.

### 의료인의 소명의식 강조

질병의 고통은 영혼을 정화하는 도구이다. 입원은 생명의 진정한 가치와 삶을 반추하는 기회이다. 치료는 과학과 하느님의 섭리가 합쳐져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할 때 병자를 하느님의 피조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돌보았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중풍으로 마비된 자를 일으켜 세운 뒤 나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병자를 일깨워 하느님을 만나게 하였다.

의료인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소명의식이 결핍되어 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절망적일 때, 죽음이 다가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슬퍼할 때 의료인은 그들 곁에 있어주며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선한 사마리아 인은 모든 의료인의 롤(role) 모델이 되어야 한다. 병자와 소외된 이웃은 곧 예수님이시다. 그들을 선한 사마리아 인과 같은 정신과 태도로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개별적 행동으로 불충분하다. 의료기관 차원의 집단적 노력과 의료인의 결속이 더 중요하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영적으로 두려움에 싸여 있고 고독하다. 사제는 그들 곁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하느님에게로 인도해야 한다.

### 의료인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

인생에 있어서 질병의 고통은 큰 부분을 차지하며 피할 길이 없다.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교육과 훈련에 pastoral health care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인은 생명의 수호자로 수태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의학연구에서 인간배아를 이용한 복제나 유전자 조작과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하며, 진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이 늘 존중되어야 한다. 환자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의료인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의료인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것(담배, 술, 게임 중독 등)을 끊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한다. 의료인의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신과 태도를 철저히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 대회 참가 소감

나는 이번 대회참가로 왜 가톨릭에서 병원사업과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였다. 대구가톨릭의대에서 19년을 재직하는 동안 10년간 학장직을 맡았다. 의대를 설립할 당시 재단이사장 이문희 대주교님에게 왜 의대를 설립하셨냐고 물었을 때 완전한 인간 구원사업(신체적, 정신적, 영적 구원)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그 뜻을 받들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그래서 대구가톨릭의대 교육과정에는 소위 인성교육을 위한 윤리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계 과목이 많이 들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태가 그러하지 않는데 이러한 강의를 한다고 좋은 의사가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인성교육은 콩나물에 물주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가끔 외부 의사로부터 “당신 학교 졸업생은 뭔가 좀 다르더라.”고 하며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해 주었다. 헛수고는 아니었구나 싶어 다행으로 여겼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

전 세계에 약 130,000개의 가톨릭 병원의 근무자들이 복음화되고, 이들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복음화시킨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